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11월 3일(금)
(음력 9월 15일)

Пятница

3 ноября 2017 г.

№ 43(11676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1월 4일, 러시아 국민단결의 날

11월 4일은 러시아 국민 단결의 날이다. 전례적으로 이날엔 시민들의 행진이 조성되는데 10시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위스크레센스키 성당 근처에 모인 주민들은 카잔 성모 성화상을 들고 포베다광장 쪽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 마당은 주요 행사장이 된다. 이곳에서 공연을 비롯해 오락프로그램, 박람회, 민족요리마스터클래스 등 수많은 행사들이 펼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식기자 사진첩에서)

일본대표단 66명, 쿠릴열도 방문·공동 경제 프로젝트 논의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쿠나쉬르, 이투루프와 쉬코탄 3개의 쿠릴섬들을 제2회 일본 비즈니스 사절단이 찾았다. 사업가들과 공무원 66명으로 구성된 일본대표단 단장은 일본 총리 고문 하세가와 에이찌가 맡았다. 대표단은 러시아 기업인, 정부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다.

올해 6월에 첫 사업과제가 조성되어 러시아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총리가 체결한 쿠릴열도 공동경제활동 합의에 따른 실행으로 쿠릴 4개 섬들을 방문하고 경제협력의 전망과 방향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이번 방문목적은 공동 프로젝트 구체화를 위한 것으로 9월에는 양측이 1단계로 양식사업, 온실 채소, 패키지 관광개발, 주변 환경보호, 풍력에너지, 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쿠릴열도 방문 시 일본대표단은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주지사, 웨라 웨르비나 주정부 수상과 만남을 가졌다.

사할린 한국어교사 연수 실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사할린국립대·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사할린한국교육원 공동주최로,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사할린 한국어 교사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연수에는 주내 한국어교사와 예비교사(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학생), <에트노스>예술학교 한민족문화예술과 교사 등 20여 명이 참가했다.



임 엘위라, 코르네예와 인나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교수, 김주환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하고 연수의 일환으로 한지수업도 있었다.

연수를 마친 교사들은 수료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본사기자)

사르키스 아코판, 사할린주 두마 의원으로 선발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으로 제7기 사할린주두마 의원으로 비례투표로 선출된 유리 아르하로브 의원이 러시아연방 의회 의원으로 선정되어 주두마 의원직이 공석이 되었다. 공석이 된 비례투표 의원 선출을 위해 <예지나야 러시아>당 사할린지부는 이 자리에 사르키스 아코판을 지명했다. 사업가인 사르키스 아코판은 장기간 사회활동을 해왔으며 현재는 사할린주 민족아삼블레야 회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단신

주지사, 사할린주 건설부 차관 해임 시켜

사할린주 건설부 제1부 차관 나탈리아 짜모센코가 해임을 당했다. 차관의 업무 중 하나는 쿠릴섬 건설 담당이었다. 퇴임 결정은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가 유즈노쿠릴스크 실무방문 결과 회의에서 언급했다. 주지사는 쿠릴섬에서 공공주택건설에 대한 건설부의 감시 감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나의 역사> 디지털 역사공원 오픈

국민단결의 날 기념의 일환으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포베다(승리)광장 근처(성탄성당 옆)에 위치한, <러시아는 나의 역사> 새로운 역사 박물관이 임시 개관된다.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해 역사를 되살릴 이 박물관의 면적은 약 7000m² 다. 멀티미디어 장비 400개(인터랙티브 테이블 20개, 프로젝터 330개, 접속시스템 20개)와 동형 영화관 설비는 학생들이 역사를 쉽게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은 개장은 11월 4일 13시부터 19시까지고 5일과 6일에는 11시부터 18시까지 그룹별 관람객을 받는다. 입장은 무료이며 이후 완공을 위해 박물관은 문을 닫는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 보궐선거, 37명 출마 결정

12월 10일 제5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 의원 보궐선거가 있다. 10월 말까지 후보자 지명하고 시민들은 제2, 3, 11, 17 선거구의 1석 의원들을 뽑게 된다. 마지막 의원 후보가 10월 28일 선거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선거위원회 정보에 따르면 의원 4석을 두고 37명이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중 남성 25명, 여성 12명이다. 최연소 후보의 연령은 25세, 최고령 후보는 68세다. 선거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 중에 35세 이하의 후보가 비교적 많다고 한다.

21명이 당소속, 16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지나야 러시아(통합)>당, 러시아연방 공산당, 자유민주당, <스프라웨들리와 야 러시아>당, <컴뮤니스트 러시아>공산당, <러시아 여성들을 위한>인민당들의 사할린지부들에서 의원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사할린, 2018년 주예산 프로젝트 공청회 개최

11월 7일 정오 12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옥짜브리>영화관에서 <2018년과 기획기간 2019-2020년 사할린주 예산>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주민들은 공청회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열려있는 예산>포털의 포럼 <https://openbudget.sakhminfin.ru/forum/index.php?topic=332.new#new>에 올릴 수 있다. 또는 메일 ob@sakhminfin.ru로 보낼 수 있다.

모든 희망자는 공청회에 참가가 가능하다. 행사는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크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지난 24일(토)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주한인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운영위원 28명 중 회의에 23명이 참석했다.

회의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김홍지 주한인 노인회 회장이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유골봉환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고르노사위드스크 한인회 정운식 회장에게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표창장을 전달했다. 수여식은 지난 9월에 있었는데 그 당시 정회장이 참석하지 못해 이번에 전달하게 되었다.

운영위 회의 의정에는 2가지 문제가 올랐다. 주한인회 회의 3/4분기 사업보고와 기타 문제다.

첫 문제로 박순옥 주한인회 회장이 보고했다.

박 회장은 올해는 행사와 활동이 많은 해라면서 3/4분기에도 역시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간단히 가장 큰 사업과 행사를 소개하겠다고 했다.

우선 7월에 이미 정례대로 사할린 동포 청소년 역사캠프가 진행되었다. 올해 이 역사캠프의 활동에 17명의 학생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우글레고르스크, 토마리, 네웰스크, 코르사코브, 아니와, 홀스크, 돌린스크, 빅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대표했다. 학생들은 역사캠프에 만족감을 표했다. 다만 4일 기간은 너무 짧다며 내년엔 다시 이 캠프 활동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박순옥 회장은 이에 '학생들이 동포 사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표명했다고 했다. 지방한인단체가 17개이고 역사캠프 참가 희망자도 많은데 동포 사회활동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청소년은 별로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학생들을 위해 주한인회(한국어교사협회)와 사할린국립대가 전례동화 그림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작품 12장으로는 2018년 달력을 만들기로 했다. 이 콩쿠르에는 35명이 참가했는데 그중 크라스노고르스크 학생 4명, 코르사코브 학생 1명, 홀스크 1명, 나머지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생들이다. 회의에서 한인회 회장을 통해 지방 학생들에게는 참가상을 전달했다. 박순옥 회장은 지방한인회들이 학생들과의 활동이 부족하다고 했다. 청소년들을 사회사업에 유치해야 하는데 한인회 회장들이 제대로 정보를 전하지 않거나 학생들이 참가하고 싶어하지 않은가란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동화 그림 그리기 대회는 <한 가정에서> 보조기획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이 기획의 일환으로 홀스크시와 돌린스크시에서 공연을 펼치고, 한인문화센터에서는 이예식 사진기자의 사진전을 열었다. 박 회

사할린주한인회 운영위 회의에서 3/4분기에도 많은 사업을 해왔다

장은 돌린스크시 행정부에서 이번 공연을 지원하고 홀스크시에서도 지원했다고 알렸다. 이예식 사진기자의 사진전은 언론인들과 동포들 사이에 많은 관심을 끌었다.

7월 28일 마카로브시에서 제4회 <우리는 함께 있다>민족 간 축제가 진행되었다. 4년 전에 주한인회가 기획행사로 시작한 이 축제는 마카로브 시행정부와 시한인회의 노력으로 올해는 지방행사에서 벗어나 사할린주의 축제로 변경되었다. 또 마카로브 한인회는 <제주두루나눔>민속문화단체(한국 제주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미 3년간 교류를 잘 해오고 있다. 올해는 제주도 문학인들이 모금운동을 펼쳐 마카로브 향토박물관에서 한인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2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홀스크시와 협력협정서를 체결한 주한인회는 이번에 두 보조기획의 일환으로 홀스크 한인회와 홀스크시 행정부와 공연도 하고 포자르스크에 근처 27인 한인 피살자 추념비에 대한 동영상 제작기획도 추진했다. 최근까지 추념비 현장을 홀스크 한인회가 돌봤지만 올해부터는 홀스크 정부에서 협정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 벌초 등 정돈 사업을 해오고 있다. 박 회장에 따르면 내년에는 한인피살자추념비 부근을 잘 정돈하고, 주차장도 건설하고 의자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박 회장은 이미 한국 스폰서들을 찾았다고 전했다.

8월-9월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3번에 걸쳐 사할린 한인회생자 추모제를 가졌는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1공동묘지 위령비, 한인문화센터 앞마당 사할린 한인회생자 위령비, 이중징용광부 위령비 앞에서다. 박 회장은 앞으로 한인문화센터 앞마당에 있는 위령비를 앞에서도 추모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표명했다.

광복절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비롯해 여러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진행되었다. 크라스노고르스크와 샤흐초르스크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들이 보고했다고 박회장이 알렸다. 특히 올해 토마리 한인회는 활발한 활동으로 이 행사 진행에 토마리 정부로부터 10만 루블리를 받았다 한다. 박순옥 회장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경우 주한인회 측에서는 서류작성(신청, 보고서 등)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회장은 무엇보다 거의 모든 지방한인회들이 올해 사업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3일에는 한인문화센터에서 이혜미 한국 가수의 공연이 있었다. 올해 이혜미 가수는 사할린 우리말 방송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 지 15년이 되었다.

9월 6일에 박순옥 회장은 사할린주 정부 대표단의 한 일원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다. 주정부가 각 대표들 참가비용에 25만 루블리를 지원한 것은 사할린한인들을 인정하는 의미라고 박 회장은 강조했다.

9월 7일에는 사할린 한인대표단(14명)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초청 간담회에 참가했다. 박 회장은 이날 느낀 소감, 오찬에서 사할린한인들에 대한 특별 배려와 김윤덕 할아버지의 발표(새고려신문에서 이와 같은 내용 이미 게재)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9월 9일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설립 135주년을 기념했다. 이날 시민들의 행진이 이루어졌는데 한인들은 사할린주 민족아삼블레야가 주최한 민족단체들과 함께 행진했다. 이와 관련해 박순옥 회장은 이 행진에 참석하도록 많은 한인시민들을 소집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회장 림종환)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 9월에 주한인회가 정례적으로 동포 미니축구시합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개최하여 시합에는 8개 팀이 참가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돌린스크 한인회와 아니와 한인회가 자체 팀들을 구성해 출전시켰다. 주한인회배 트로피는 빅코브팀이 따냈고 코르사코브는 2등, 돌린스크팀은 3등 한 가운데 이번에 우승팀들은 상금을 받았다

9월 말에는 서울에서 제11회 세계한인회장대회가 개최되어 사할린을 대표해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과 사할린한국한인회 현덕수 회장이 참석했다. 대회 섹션 회의에서는 뜻밖의 '사할린주 한인회가 고려인

협회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가?'란 질문이 나와 이에 박순옥 회장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올해 일시 모국방문사업으로 한인 1세대 동포 44명이 한국을 다녀왔고 2세대로서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 31명이 방문하게 된다. 사실 2세대 방문은 39명이 계획이었으나 제때에 수속절차를 밟지 못해 8명이 빠지게 되었다. 박 회장은 한국을 방문할 때 대한적십자사 특수사업소 소장과 만나 모국방문 등 사업을 논의했다며 2세대(친부모 사망 자녀) 모국방문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부모 중 한 분이 한국에 다녀간 적이 있고 1995년 이전에 사망한 2세대도 모국방문의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했다. 모국을 다녀가지 못한 채 두 분 다 사망한 1세대 부모를 두었던 2세대들은 아직 사할린에 많이 있지만 특히, 지방에 이들이 여러 사유로 서류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친부모 사망 자녀 2세대의 모국방문사업은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고 있다고 박회장이 상기시켰다.

또한 대한적십자사가 올해 처음으로 2세대 약 250명의 방문사업을 추진했다고 박 회장은 밝혔다. 모국방문은 9월 말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 2세대들은 한국으로 귀국한 부모들을 방문하고 있다.

6월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 제2차 1세대 방문단이 한국으로 떠났다. 오랫동안 치료받은 사람들은 7월에 돌아왔다. 이들과 함께 가족 보호자들이 동행했는데 보호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말고 부모님만을 돌봐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박 회장은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측에서는 보호자 지원을 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박 회장은 지적했다.

주한인회 소속 의료상담실사업을 보고하면서 박 회장은 1세대 노인들은 제때에 필요한 의약품을 보급받고 있다고 했다. 의료상담실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는데 아직 일본 측에서는 지원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으며 현재 의료상담실 사업에 이상이 없도록 빌린 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홍지 회장은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블라디보스토크협의회 출범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나 코르네예와 사할린한국어교사협회 회장은 차세대 민족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학생들을 위한 콩쿠르에 적극 참여를 종용해 달라고 주한인회 운영위원들에게 부탁했다.

서진길 사할린주 한인이중징용광부 유가족협회 회장은 내년부터 사할린 한인회생자 추념제를 9월 9일로 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사할린 주민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의 밤>

11월 3일<예술의 밤>전국 행사의 일환으로 사할린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축제를 조성하기 위해 주립 미술박물관과 향토박물관, <사할린 섬>체호브 책 문학예술박물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 행사는 10월 혁명 100주년 기념 행사로서 박물관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에는 공연, 활동교실, 영화상영, 견학, 모험게임, 놀이, 레이저쇼 등이 있다.

이날 사할린 주민과 방문객들은 행사 참가 시 위의 아무 박물관에서든 박물관의 직원들이 도장을 찍게 될 프로그램 팸플릿을 받게 된다. 팸플릿에 3개의 박물관 도장이 있을 경우 관객들은 박물관에서 선물을 받게 된다. 이 행사는 11월 3일 하루만 진행된다고 미술박물관 측은 전했다.

Сахалинцы в "Ночь искусств"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дарки

3 ноября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Ночь искусств" областны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и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и, а также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объединятся, чтобы устроить праздник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В этом году акция приурочена к 100-летию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Программой музеев запланированы концерты, мастер-классы, кинопоказы, экскурсии, квесты, игры, лазерное шоу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любом из названных музеев в этот день сахалинцы и гости област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буклеты с программой, в которые при посещении мероприятий сотрудники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будут ставить печати. Предъявитель буклета с тремя печатями получит приз в любом из музеев. Акц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а только 3 ноября, сообщает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사할린 주민들을 민속학적 받아쓰기에 초대

국민단결의 날 전날인 11월 3일에 치러지는 <대규모 민속학적 받아쓰기> 전 러시아 행사에 사할린주의 지원으로 지방 9개 지역에 10 곳의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행사에 참가하는 자유이며 10곳의 시험장은 유즈노사할린스크, 포로나이스크, 노글리키, 오하, 코르사코브, 마카로브, 티몹스코예,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토마리에 준비되었다. 행사장의 주소는 공식 사이트인 www.miretno.ru 와 사회정보망에 <대규모 민속학적 받아쓰기> 그룹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받아쓰기는 30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20개 문항은 러시아와 러시아 주변국에 동일하게 주어지고 10개 문항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채점은 1 문항당 1점에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시험 시간은 45분간 치러진다.

지역별 민속학적 받아쓰기에 10개 문항은 사할린 국립대 러시아 및 일반 역사학 학과장이며 역사학

박사인 알렉산드르 와실렙스키 교수가 작성했다.

조직위원회는 올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온라인 상에서 받아쓰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민속학적 받아쓰기> www.miretno.ru 사이트에서 또는 행사 정보를 협찬하는 <콤포스카야 프라우다>신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받아쓰기 대회는 11월 3일 10시(사할린 시간)부터 11월 5일 23시 59분(모스크바 시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정답과 일반적인 오답의 분석 자료는 11월 10일 행사 공식 사이트에 올리고, 받아쓰기의 점수 결과는 12월 12일 러시아 연방 헌법의 날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писать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ддержит всероссийскую акцию «Большо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которая пройдёт накануне Дня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3 ноября) на 10-ти площадках в 9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иктант начнется ровно в 10.00 часов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акции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Площадки организован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ронайске, Ногликах, Охе, Корсакове, Макарове, Тымовске,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и Томари. Их адреса можно найти на сайте www.miretno.ru, а также в группах «Большо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8면에 계속)

본사 이예식 기자의 사진전 성황리에 열려 흑백사진 속 사할린 한인 1세대 감동시켜

10월 27일(금)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새고려신문사 이예식기자의 사진전 <귀환>이 열렸다. 사진전은 사할린주한인회가 추진한 <한 가정에서> 기획의 일환으로 주최하고 주정부와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했다.

전시회는 주내 언론매체, 동포들 사이에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예식 기자는 정말 실력이 인정된 사진기자다. 전시회 출판작은 사할린 한인 1세대를 대상으로 한 흑백 사



민음을 지켰던 1세대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포착하였다. 사진 속의 주인공 대부분은 현재 돌아가셨다... 제가 거의 20년간 이산가족협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예식 기자의 사진전 주제를 잘 알고 있고, 보고 있노라면 아련히 가슴 아프다."며 "이 전시회는 무엇보다 우리 차세대에게 잊혀져가는 사할린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최했다."고 전시회를 여는 취지를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이 밝혔다. 주 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출장소 황명희 소장은 "아시아시피, 작년 10월 서울에서 출간된 이예식 기자의 귀환이란 사진집은 사할린 한인동포들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는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한인동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사진집을 통해 우리 한인동포와 사할린 주민들과의 더 많은 소통을 기대하면서, 사할린주 정부, 교육기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 사진집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개최되는 사진전을 보면서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조국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한인동포분들의 모습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기록의 역사를 선사해 주신 이 기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고 축사했다.

러시아연론인연맹 사할린 지부 류보워 카시안 지부장

은 "미하일 리워위츠(이예식 씨의 러시아어명)는 <스타 동료>." 라며 "일상에서는 아주 겸손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환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도 이예식 기자의 작품을 통해 차세대가 교육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예식 기자는 이번 전시회에 출판한 사진 속 주인공들의 후손들이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후손 시리즈를 만들 생각도 있다고 표명했다.

이날 많은 관객들이 이예식 기자의 <귀환>사진집 (주한인회 후원)을 받고 기뻐했다.

거의 30년간 새고려신문사에서 정규 사진기자로 활약했는데 사실 동포신문사와 인연을 맺은 지는 70년대 중반부터다. 사진에 빠진 이예식 씨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본사 통신원으로 활약했으며 <소웨츠키 사할린>, <물도다야 그와르지야> 지에도 사진을 보냈다.

그동안 이예식 기자의 개인전과 공동사진전은 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서울, 부산, 춘천 등), 일본 (오사카, 삿포로)에서 진행되었고 여러 국제사진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전문 사진작가들 속에서, 이곳 사할린, 그리고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중에서 사진 작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날 이예식기자의 사진전을 찾은 동료 일동이 필자를 포함해 축하했다.

(배순신 기자)



진 30점이었다. 이 사진들은 2016년에 서울에서 출간된 <귀환>사진집에서 선정된 사진들이다. 사진집은 인상 깊은 100여 개 흑백 사진으로 구성되었다.

'일상에서 만난 분, 이산가족 재회로 한국으로 떠난 어르신, 영주귀국하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 가는 분, 이들을 배웅하러 나간 가족...' 절실한 이야기들이

스며든 장면 하나하나가 이예식 기자의 작품거리다. 더군다나 이예식 기자의 92세인 아버님도 1세이기에 1세대 테마는 더 깊이 느껴진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 한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이예식 선생님의 사진에는 시간이 멈추어져 있다. 이예식 기자님은 언어, 문화, 전통, 민족성, 그리고 무엇보다 귀환에 대한

학살된 27인 한인희생자에 대한 영화 상영85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난 28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일제 강점기 해방 직후 미주호(현 포자르스코예) 촌에서 발생했던 한인 27명 학살사건에 대한 영화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1945년 8월에 소련군대의 입성을 앞두고 미주호 마을의 일본인들은 소련군대 입성을 두려워해 한인들을 스파이로 여겨 여자와 아이들(6개월 영아도 있었음) 포함해 같은 마을에 일반 한인 주민들을 학살했다.

소개된 영화는 사할린주 정부 지원금으로 제작되어 프로젝트는 사할린주한인회, 홀스크한인회, 사할린주두마 아르쎌프 크루글리크 의원, 홀스크 중앙문화회관 매니저 알렉산드르 야코벤코(본 영화 감독)가 추진하였다.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취지는 금년 5월에 27인 한인 피살자 추념지 현장에서 발생한 문화파괴 행위 후(이와 관련 새고려신문 2017년 5월 1일 3면 기사 - 기자주)에 생겨났다. 그때 문화파괴자들로부터 포석 7평방미터를 도난당했었다. 이후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모여 차세대를 위한 영화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영상 상영을 앞두고 박순옥 주한인회 회장이 당시 사건을 알렸다.

영화 제작팀은 사할린주국립역사문서보관소 자료와 콘스탄틴 가포벤카 저자가 쓴 <미주호촌의 비극>이란 책을 토대로 제작했다. 15분간의 영화에 야코벤코 감독은 1940년대의 많은 다큐멘터리 자료를 이용했다.

영화 상영 후 마련된 토론에는 홀스크한인회 박영순 회장, 유즈노사할린스크 로타리클럽 대표, 김춘자 우리말방송 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영화가 젊은 세대의 바른 역사 알리기, 애국심 교육 등에 꼭 필요하다고들 했다. 로타리 클럽 측에서는 이 영화를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박순옥 회장은 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여 앞으로 한국어 자막 처리도 할 예정이며 이 작업을 우리말방송 프로에 부탁했다고 밝힌 가운데 27인 한인피살자 추념지 현장 개건 작업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이날 제안을 고려해 한국어 자막이 있는 동영상을 올 겨울에 제작할 예정이다.

홀스크구역 주민들은 이 영화를 이미 10월 23일 프라우다마을 문화회관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큰 호응을 받으며 안드레이 수호메소브 홀스크 시장은 이 동영상을 이 지역 학교 역사시간에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배순신 기자)

참고: 포자르스코예 27인 한인피살자 추념비는 사할린한인동포들의 협조로 1996년 한국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회장 이용택)가 건립했다. 해마다 이용택회장은 이 현장에서 추념제를 지낸다.

한인 27인 학살사건에 대한 <미주호촌의 비극> 책을 쓴 콘스탄틴 가포벤코 작가의 호소에 의해 사할린 코레이스키 클럽(현재 폐쇄)이 1999년부터 거의 10년간 이 추념비를 보살펴왔다. 2001년에 클럽은 콘크리트판도 깔고 아스팔트포장도 했고 해마다 추념지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비극의 역사 시간도 가졌다.

한인피살자 추념비에 대해 한국 로타리 3730지구는 많은 관심을 갖고 2010년 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와 홀스크 로타리 클럽들과 함께 추념지 현장 개건에 나섰다.

2012년 10월 미주호촌 27한인피살자 추념지 현장은 한 차례 주변 보수작업이 마무리되었다. (본 신문 2012년 10월 19일 기사). 2012년부터는 홀스크한인회가 추념지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한인회 협정으로 홀스크시에서도 현장 관리에 나섰다.

인하대 · 국립국어원 파견교원들, 한인 세대 초청잔치 및 말하기 대회 성황리에 마쳐...

인하대와 국립국어원에서 파견된 예비·경력교원들이 지난 달 10월 26일에 사할린 한국문화원에서 한인 1세대 초청 잔치와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2개월간의 실습 사업을 마무리하며 1세대 동포들과 교류를 하고, 실습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멘토-멘티 프로그램의 결과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예비교원 한 명과 최대 5명의 학습자들이 한 조를 이루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수업을 진행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한인 1세대 초청 잔치는 어르신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 합창단의 공연과 아리랑 팀의 특별 공연, 국립국어원과 인하대 파견팀의 합창, 1세대 어르신 노래자랑, 사물놀이 등이 진행되어 흥겨운 잔치 한마당이 되었다.

이어 열린 멘토-멘티와 함께하는 말하기 대회에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 16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주제로 그동안 준비한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또한 말하기 대회의 중간에는 학생들이 한국 노래를 열창하고 색소폰 연주와 사물놀이 공연도 펼쳐서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다. 1등에는 <유학>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경험했던 일들과 자신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발표한 세르게이(24)가 차지하였으며, 2등에는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인 선생님들을 만나 공부를 하게 된 소감과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선생님들께 보내는 감사편지>를 발표한 고만수(45)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말하기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이번 사업의 연구 책임자인 최권진 교수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모두 전반적으로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였고 특히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며 "사할린 한인 동포 사회와 한



▲ 사할린 1세대 초청 잔치



▲ 말하기 대회 심사위원들

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를 북돋우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본사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Короткой строкой

28 окт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очередное правлени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а котором обсуждался отчет о работе РООСК в 3-м квартале 2017 г.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доложила об основ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отметила, что многие местные отде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заметно активизировали свою работу.

В этот же день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ся просмотр фильма о трагедии в деревне Мидзухо, который был создан в рамках грантового проекта РООСК и Холмского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сообщила, что планируется титрование фильм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а также о том, что территорию памятника 27 невинно убиенных корейцев близ села Пожарского (Мидзухо)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 благоустраивать.

Учи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повышают квалификацию

30 октября в Институте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открылись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по программе «Формирование общей культуры учащихся в процессе иноязыч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й семинар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как инструмент живого общения в диалоге культур».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ация всех сфер деятельности человека, в том числе и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звитие и обогащение меж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являются стержневой причиной возрастания значимости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как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так и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человека. Мы живем в условиях глоб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культур, окружающий нас мир мобилен и изменчив: расширяются сферы влияния человека,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тся связи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в области туризма, но и в област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В новых для нас условиях особую значимость приобретает не только факт влад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ом, но и способность применять его в практической сфере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временными и постоянно изменяющимися потребностями общества.» - сообщ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учителей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а Корнеева, зав. кафедрой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и страноведения СахГУ, кандидат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урсов и семинара стал СахГУ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Слушателями курсов стал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туденты СахГУ, преподаватели ДШИ «Этнос».

В рамках данных курсов и семинара раскрываются понятие «иноязыч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его возможности как средства формирования общей культуры учащихся. На основе анализа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их источников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структура иноязыч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длагаются методы и приемы формирования общей культуры учащихся в процессе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Курсы закончат свою работу 4 ноября. (Наш корр.)

노루의 사향을 팝니다!

г. Иркутск, тел. : 8-924- 544-70-82

e-mail : she.xiang@yandex.ru

ООО «мускон - соболь»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476 руб. 28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открыта выставка Ли Е Сика "Возвращение"

Выставки открываются и закрываются, а книги остаются навечно.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резентовали выставку "Возвращ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тографа Ли Е Сика, которая стала "цитатой" из его одноименного фотоальбома. В выставоч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центра уместились три десятка постеров, а под обложкой книги — больше ста снимков.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чти тридцати лет фотоработы Михаила Львовича являются "глазами" областной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здание фотоальбома состоялось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 семье еди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 гранту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Тираж, изданны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Сеуле, поделен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Кореей, где ранее прошли несколько фотовыставок Ли Е Сика.

— Время быстротечно, дважды в одну реку войти нельзя, — сказала на открытии президент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 но на этих фотографиях время остановилось на миг. Ли Е Сик запечатлел лица и жизнь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смогли сохранить наш язык, культуру, традиции и, главное, веру в возвращение на родную землю. Из тех, кого вы увидите на его фотографиях, сегодня жив только Се Юн Дюн, перв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ему был запущен процесс репатриации. Эту выставку мы организовали в назидание молодому поколению, чтобы они всегда помнили и ценили своих дедушек и бабушек, которые,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трудности, сделали их жизнь счастливой.

"О, я знаю, это мой сосед/соседка", — то и дело звучало на выставке. Посмотреть работы Ли Е Сика, сделавшего документальное фото высокохудожественным фактом, пришли прежде всего те люди, чьи родители пережили полувековую разлуку с родными и Кореей. Да и у самого фотографа отец в 18 лет п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попал на Сахалин, работал на шахте в Вахрушеве. Всю жизнь тосковал по родине. Родители его не дождалась, но своих братьев он увидел. Сейчас ему 92 года, живет в Ансане.



В 90-х пали железные стены и границы и началась репатриация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На снимках Ли Е Сика ожили драматические моменты, когда возвращение, воссоединение с Кореей по новому кругу разлучало родных людей, резало по живому семье и сердцу. Порядки тогда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ыли попроще, поэтому Ли Е Сик снимал, как "король", с любого ракурса.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у было, конечно, интересно, но "лучше бы не снимать". Повторить тот страшный накал боли на проходах репатриантов уже не хотел бы. Через его внимательный объектив мы видим все те чувства, что испытывали люди: и робкую надежду, и мучительные сомнения до последней минуты, уже на взлетном поле, и слезы, слезы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Звездным коллегой" назвала фотограф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Любовь Касьян. Михаил Львович скромнейший и немногословный человек, сам сделавший себя мастером, чьи фотоработы в Корее, Японии и на всем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где живут корейцы, дают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Ли Е Сик создал обширную черно-белую портретную галерею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е, которые были частью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а репатриация в его книге — только одна из тем, хотя и смыслообразующая). В этом фотоальбоме мы можем вернуться на тридцать лет назад, увидеть свою жизнь, которую захочешь — не забудешь. Бедную, зато более дружную и человечную. Жизнь, которая ушла навсегда, и только на фото остались труженики — старухи и старики с грубыми руками и морщинистыми лицами, похожими на трещины та-кыра. "Модели" свои Ли Е Сик знал поименно ("чтобы снять, надо хорошо знать лю-

дей, просто наскоком удачный кадр не получится"). Ловил их на рынке, дома, на праздниках и антияпонских митингах, юбилеях и поминальных церемониях. И снимал так, что мы видим не грязь на улицах и разруху "святых 90-х", а истинно национальные черты корейцев, не утерянные под спудом жизненных тягот, — мудрость и доброту, терпение и трудолюбие.

На обложку книги "Возвращение" вынесен портрет пожилой супружеской пары, который он сделал в 1993 году в аэропорту на проходах очередного рейса в Корею. Этот пронзительный снимок стал, можно сказать, фирменным знаком фотографа Ли Е Сика и символом исторической драмы раздел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Жена уезжает в Корею, муж остае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его дети. Именно эта фотография была доминантой выставки в 2015 году в Инчхоне в музее истории миграции корейцев под названием "Песня тоск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ассказала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иктория Бя. Жаль, что эта выставка не появилась лет на десять раньше, посетовал художник Дю Мен Су, тогда на нее бы пришл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для которых эта тема личная. Все так, но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фотохроника Ли Е Сика обращена в будущее — как свидетельство не только трагической судьбы народа в водовороте XX века, но и удивитель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лы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его преданности родине.

...Вроде и возраст солидный, пора бы и на отдых от газетной работы, пусть уже молодежь снимает что-нибудь цветное, веселое и жизнерадостное, размышляет фотограф. Но тут же с увлечением говорит, что ищет потомков людей, которых он снимал в далеких 90-х. И если дети найдутся и отзовутся, то "Возвращение" получит продолжение.

(Марина Ильина, ИА «Сахком»)

Фото: С. Красноухова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Китай обсуждают проблему ПРО THAAD

В преддверии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й на ноябрь встречи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Сеул и Пекин активизировал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на рабочем уровне с целью разрешения разногласий относительно размещ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мериканских систем ПРО THAAD. Переговоры ведутся через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каналы. В частности, недавно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м Гван Пхё совершил неофициальную поездку в Пекин. При успешном разрешении разногласий стороны могут согласиться с тем, что развёртывание THAAD в нынешних условиях необходимо, но в случае реш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так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е будет.

Минобороны рассекретило документы 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 движении в Кванчжу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документов по события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Кванчжу 18 мая 1980 года снят гриф секретности, и они были переданы специаль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обстоятельств этих событий. Ранее в период с 6 июля по 11 октя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вело проверку всех военных архивов на момент налич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ыяснилось, что 29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хранили 600 тыс. страниц документов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2.268 страниц документов были засекречены.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общили о планах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и действующими процедурами опубликовать все имеющиеся документы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расследования спецкомисс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рыбаки, которых 6 дней удерживали на Севере, вернулись на родину

Южнокорейское рыболовное судно «Хынчжин-391», которое вместе с экипажем из 10 человек было освобожден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властями, прибыло поздно вечером 27 октября в порт Сокчхо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рыбаки удерживались на Севере в течение шести дне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21 октября их судно оказалось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водах. Как сообщило накануне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судно и его экипаж, в составе которого семь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трое граждан Вьетнама, было решено освободить «из соображений гуманности». Передача состоялась на Северной разграничительной линии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В РК оценили активность МОК в вопросе участия КНДР в Олимпиаде в Пхёнчхане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и поним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лимпийским комитетом важности участия КНДР в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 Пхёнчхан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эк Тхэ Хён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решение МОК покрыть расходы на участ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в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Он заявил, что участие Севера в Играх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условием в придании мероприятию статуса «Олимпиады Мира». По его словам, в этом вопрос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ддерживает тесные контакты с МОК. Между тем, позиция Пхеньяна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пока не ясна, отмет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В торговле между РК и США возникла проблема стиральных маши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аправила в Комитет ВТО по специальным защитным мерам запрос на проведение консультаций с США. В Сеуле считают неправомерным введённые Вашингтоном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импорт некоторых видо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тиральных машин. Защитные меры применяются только в случае нанесения серьёзного ущерба отечественным 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или его угрозы в ходе прямой конкуренции. Однако стиральные машины премиум-класса с уникальной конструкцией и запчасти к ним не производя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Ш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ашингтон не может применить защитные меры в отношении продукции, которая не производится мест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Тем не менее,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оизводитель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Whirlpool обратился в Комиссию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е с требованием провести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 поводу импорта стиральных машин производства Samsung Electronics и LG Electronics.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оизводитель запросил у комиссии наложить на них 50-процентные пошлины. (RKI)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пригласили 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 продолжить диалог

25 октября 2017 года в Сеул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новых проектов (АСИ) и Фонд «Росконгресс» представили корейским инвесторам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8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ело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Бизнес в России: регион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им агентством содействия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КОТРА),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ой палато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ССИ) и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КИТА). Это на практике отражает реализацию меморандума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фондом «Росконгресс» и КОТРА, обмен подписан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по которому состоялся на площадке ВЭФ в присутств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а.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Нов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Никитин, губернатор Ханты-Мансийс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Югры Наталья Комарова, губернатор Калуж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толий

Артамонов, глава Северной Осети Вячеслав Битаров,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ег Кожемяко,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Амурской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Подчеркивая важность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обменов за минувшие годы,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СИ Светлана Чупшева отметила, что не только Росси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приходе 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технологий и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практик, но и для бизнеса Кореи очень важно узнавать больше о возможностях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По ее словам,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актуальность сегодняшнему форуму придает недавняя встреч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президента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а на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сегодняшняя встреча является практической реализацие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о чем договорились Путин и Му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 один из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артнеров близлежащ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 Сахалина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Как от-

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ег Кожемяко,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близость к емким рынкам стран АТР, высокий ресурсный потенциал делаю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для развития внешнеторгового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Безусловно, позитивное влияние на развитие внешнеторговых отнош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оказала реализация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на шельфе острова.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являются одними из основных импортеров нефти и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Кроме нефти и СПГ мы поставляем на корейский рынок уголь, рыбу и морепродукт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закупаются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механические устройства, черные металлы и изделия из них, суда и лодки, полимерные материалы. В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е работает порядка 150 млн долларов 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72 пред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филиал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ряда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 рассказал Олег Кожемяко в рамках презентации.

Лучшим спортсменом сентября и октября сахалинцы признали самбиста Владислава Ким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агентством Sakh.com объявило о начале нов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за лучшего спортсмена. Впервые за всю историю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а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выносились кандидатуры спортсменов, которые показали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как в сентябре, так и октябре.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голосования читателей Sakh.com победителем выбран самбист Владислав Ким. В сентябре юноша стал серебряным призер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урнира "Кубок президен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самбо", который прошел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Донгхэ. Владислав выступал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62 кг. Анивчанин, тренирующийс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Николая Хона, уверенно преодолел барьер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этапа, однако в финале проиграл сопернику из Узбекистана со счетом 1:4. За него проголосовали 136 человек.

Вторым стал еще один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амбо — Мурат Буклов. В октябре он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турнира, посвященного памяти героев-пограничников. Островной мастер спорта выступал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100 кг, где выиграл все схватки и завоевал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За него свои голоса отдали 90 человек.

Замыкает тройку призеров боксер Артем Сычев,



который в октябре взял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турнира по боксу имени Романа Жабарова в Туле. Юноша 1999 года рождения провел три боя и стал первым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81 кг. За него проголосовали 33 человека.

Всего в голосов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397 человек, сообщает ссылкой на пресс-службу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стоялся круглый стол по вопросам саморегулирования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дискуссионной площадки выступила Общественная палата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ссоциаци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Сахалинстрой». В работе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и саморегулируем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а также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Неретин.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алина Дзюба, обратилась к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бизнеса с просьбой сделать акцент на том, зачем саморегулирование их отрасли, какая польза от них для бизнеса и области в целом.

- Сегодня мы хотел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нять, готовы ли органы власти стать полноправ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для саморегулируем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лучился очень конструктивный диалог.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ласт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морегулируем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даст позитивный эффект,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почувствовать каждый сахалинский потребитель. Это - обеспечение качеств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и защита населения от недобросовестных участников рынка, - сказала Галина Дзюба.

С содокладами выступ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 области ЖКХ, управления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ми домами, рыбной отрасли, крестьянских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ооперативов, а также других направлений. Докладчики сошлись во мнении, что при определенных минусах,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нститут саморегулирования имеет значим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Участник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поддержали инициативу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раслев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работод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е Саморегулируемое Объединение Строителей» по созданию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вития саморегулиров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Подводя итоги обсуждений,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Неретин отметил, что круглый стол - это начало большой и интенсивной работы в области развития саморегулиров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Итогом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шедшего в формате оживленной дискуссии, станет принятие резолюции с предложениями и инициативами участников засед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ятся публичные слушания по проекту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2018 год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бсуждении проекта закона «Об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2018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9 и 2020 годов».

Цель слушаний - ознакомит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бюджетного процесса и получить предложения и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приоритета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зны.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7 ноября в 12.00 в кино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Октябрь»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45. Рассчитано оно на 2 час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бсуждении проекта закона глав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документ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Также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телевизионные и онлайн трансляции.

Вопросы и предложения к публичным слушаниям можно задать уже сейчас на форуме портала «Открытый бюджет» по адресу: <https://openbudget.sakhminfin.ru/forum/index.php?topic=332.new#new>. Также их можно направлять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ob@sakhminfin.ru.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материалы к Публичным слушаниям размещаются до 31 октября по адресу: <https://openbudget.sakhminfin.ru/Menu/Page/523>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град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чемпионата «Абилимпикс»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II Рег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мастерству для лиц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остоялась в сахалинском техникуме сервиса. Участниками состязаний в этом году стали 42 конкурсанта.

Олимпиада возможностей проходила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по 8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компетенциям. Пять - для студент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варское дело, малярное дело, издательское дело, документацион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управления и архивоведение, деревообработка) и три для школьников (робототехника,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баз данных, дизайн персонажей анимация). Мастерство конкурсантов по каждой компетенции оценивало жюри,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ошл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редн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Высшие награды получили победители в каждой компетенции. Лучшим поваром стал Артур Бадретдинов, сту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в компетенции «Малярное дело»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Лилия Яцышина, из того же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В номинации «Документацион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и архивоведение» - победила Алена Михайлова, студент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о-

мышлен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Лучшим в компетенции «Издательское дело» стал Денис Питта, сту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ервиса. В компетенции «Деревообработка» почетное первое место получил Константин Добряк из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КХ.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на базе Учебного центра «Акти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первые места были присвоены: Владимиру Шубенкову - компетенция «Робототехника», Ольге Любиной - компетенция «Дизайн персонажей/анимация» и Илье Тен - компетенция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баз данных».

Заслуженные награды победителя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борочного этап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вруч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Он отметил, что чемпионат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нет традиционным.

- «Абилимпикс»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выпускников и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и личностному росту. Сахалин гордится вашими победами! Ваши достижения - это пример успеха, и надежда на самореализацию для будущих участников чемпионата, - сказал Антон Зайцев.

Побед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чемпионата «Абилимпикс» отправятся в Москву для участия в финале II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с 30 ноября по 3 декабря 2017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за минувшие два года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й совет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прошл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толия Макоедова, посвящено вопросам, связанным с лососевым хозяйство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роме членов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го совета, в засед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70 человек,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различные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орга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НИРО, Сахалино-Курильског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Погранич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рыбвода, СаХГУ и другие выступавшие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сосредоточили на итогах лососевой путины, результатах контроля промысл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актуальных вопросах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есурсов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искусственном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е и состоянии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для рыбной отрасли региона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барьерах при промысле водных биоресурсов.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оказалось эмоциональным, но вместе с тем весьма конструктивным. Участники не только обозначали и активно обсуждали проблемные вопросы, но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длагали конкретные меры по улучшению ситуации в лососевом хозяйстве.

Так,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директора СахНИРО Дмитрий Галанин, опираясь на научные данные, предел возмож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ставных неводов на предстоящий период обозначил на уровне до 250 единиц. С этой цифрой согласились многие участники заседания, включая и руководителя Ассоциации «Союз рыболюбителей колхозов и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Сахалино-Курильског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услан Непомнящий предложил установить требование,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пользователи рыбопромысловых участков, уличенные в скупке незаконно добытой рыбы, потеряют право на дальнейшее осуществление промысла на этих участках.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также было поддержано подавляющим большинством участников заседания.

Проект протокола заседания, включающий все его решени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ет размещен на сайте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и коллективной доработки.

Реш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и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итогам предстоящей 7-8 ноября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лягут в основу предложен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сохранение и увеличение запасов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Сахалино-Кури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которые будут подготовлены Агентством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к 20 ноя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С 4 по 6 ноября жители и го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могут посетить бесплатно экскурсии в нов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Первым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экспозициями мультимедийного проекта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журналисты региональных СМИ в ходе ознакомительного пресс-тура.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изучили также действующие историки, ученые, работники библиотек области.

На площади почти 7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буквально оживает благодаря 400 единицам смонтированного мультимедий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20 интерактивных столов, 330 проекторов, 20 кинект систем). Уникальным местом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станет единственны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2-ти метровый купольный кинотеатр. Посетители, разместившись на мягких креслах-пуфах, смогут посмотреть различ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фильмы.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а

единый сервер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льтимедийного выставочного проекта уже загружено 50 терабайт данных, планируется загрузить еще 100 терабайт.

- Структура экспозиции четкая, показаны не только события истории, но и их взаимосвязь - это правильный системный подход.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между этапами становления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 отметил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российской и всеобщей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евский.

Ресурсы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ориентированы на разные возрастные группы. В комплексе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и студенту-историку, детально изучающему прошлое, и взрослому, кто был свидетелем тех или иных событий XX века, и школьнику, только получающему начальные знания об истории своей страны.

- У современных детей другое мышление, принцип восприятия информации. Для них важен видеоряд, зрелищность, здесь можно все потрогать,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обрать виртуальный танк или построить энергосистему России царского периода. Один клик - и интерактивный стол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поле боя.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интерактивных играх, викторинах. Такая наглядная информация будет легко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школьниками. Главное - заинтересовать детей, а потом они сами начнут глубже «копать» и изучать, - поделился своим мнением учитель истории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Алексей Саньков.

Проект создан творческой группой под эгидой Патриаршего Совета по культуре и получил поддержк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ПАО «Газпром».

4 ноября,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презентация первых экспозиций мультимедийного проекта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Они будут открыты с 13.00 до 19.00 часов.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5 и 6 ноября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с 11.00 до 18.00 часов для экскурсионных групп. Вход для всех посетителей в эти дни будет бесплатным. После он снова закроется до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торая японская бизнес-миссия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завершила свою работу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ую группу из 66 бизнесменов и чиновников, прибывшую на теплоходе «Этопирика», возглавил советник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Эйити Хасэгава.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группа из бизнесменов и чиновников из Страны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посетила три российских острова - Кунашир, Итуруп и Шикотан. Состоялся ряд встреч с российски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изит делегации из соседней страны состоялс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достигнутых в ходе встреч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Синдзо Абэ. Они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в частности, ведение совместно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Курилах. В июне на островах побывала первая бизнес-миссия,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была определить перспекти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Гости проявили интерес к инициативам, которые выдвинули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сделали ряд встреч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В результате сегодня в повестке дня -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в сфере марикультуры,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энергетики, туризма и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Задача второй бизнес-миссии, прибывшей на росси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27 октября, - изучение конкретных деталей проект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сторонам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существен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Например, российские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и, работающие на островах, готовы к созданию совмест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по выращиванию ценных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Японская сторона также проявила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организации пеши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по островам, созданию кемпингов.

- У многих граждан нашей страны есть большое желание побывать на Курилах, - 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Иито Южи. - Хотелось бы помочь им в реализации этого желания и организовать первый тур летом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о словам Иито Южи, японцев привлекают на Курилах природн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 богатая растительность, горячие источники, красивые пейзажи.

Еще одно перспективное начинание - в сфер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Куриль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намерены наладить выращивание овощей. В свою очередь японская сторона предлагает эффектив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еплиц и их эксплуатации.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ихся встреч затрагивался вопрос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етродизельных электростанций, а также очень актуальная для отдаленных островов тема утилизации твердых бытовых отход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모국 기여, 비즈니스실적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제16차 세계한상대회 폐막

‘더 나은 한상, 더 나은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지난 25일 부터 사흘간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제16차 세계한상대회가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성과와 한상의 다양한 모국 기여 방안을 확인하며 폐막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한상들은 국내의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청년 취업난이 사회 문제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모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견고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회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부터 열린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프로그램인 <한상&청년, Go Together!>를 통해 30개국 70개 한상기업이 국내 청년 100여 명을 채용했다.

대규모 인원이 한상대회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것으로, 견고해진 한상 네트워크가 제품 수출을 넘어 '인재 수출'의 장으로 모국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예년과 달리 전일 프로그램으로 확대된 <한상&청년, Go Together!>는 인턴 면접에 이어 토크 콘서트와 특강, 사례발표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용기와 도전정신을 북돋아주는 시간이 마련됐고, 청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상&청년, Be Partner!'를 신설해 한상의 청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오후 1시부터 열린 2부는 개그우먼 박지선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와 인기 한국사 강사 최태성의 특강 등 국내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 라오스 코라오그룹 오세영 회장과 미국 Flexfit그룹 조병태 회장이 '글로벌 CEO 특강'의 연사로 나서 국내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한상기업 청년인턴 1기 참가자로 라오스 코라오그룹의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이솔지씨가 사례 발표를 통해 또래 취업준비생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해 줬다.

3부는 청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상&청년, Be Partner!'로 꾸며졌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에 청년 스타트업 5곳이 참가해 한상들로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받았다.

이 밖에 대양주와 동남아, 북미, 아시아, 아·중동, 유럽 및 중남미 등 대륙별 해외 취업 정보관을 운영해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비즈니스 프로그램 도입 등 축적된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즈니스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돋보였다.

350개 부스가 들어선 기업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등 다각도로 진행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10,513건(기업전시회 9,554건,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446건 등)의 상담이 이뤄져 1억 8천8백만 달러의 비즈니스 성과를 기록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한상 비즈니스 플랫폼'에서는 국내 주류 생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우리술 미니 바인쇼>가 올해 처음 열렸다.

우리 술의 수출 증진과 국제 주류시장의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12개 주류 기업이 참가해 시음행사와 함께 IR, 수출 상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KAGRO)와 무학, 창원시가 다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향후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실시하는 해외진출정보센터의 운영 역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았다.

또, 일본 동경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와 중국 상하이 상인회, 중국 대련시조선족기업협회와 재일 중국조선족경영자협회 등 총 7건의 업무 협약이 이뤄졌다. 국내 개별 기업과 단체 간의 MOU체결도 활발히 이뤄져, 향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 네트워크의 미래를 이어나갈 차세대 한상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 역시 대회의 빠질 수 없는 성과다. 35개국 154명이 참석한 영비즈니스리더들은 ▲영비즈니스리더의 밤 ▲산업시찰 ▲비즈니스 역량증대 포럼 ▲디아스포라 포럼 ▲지역회의 및 전체회의 등 대회 전일에 걸쳐 모임을 갖고, 기존 한상들과의 네트워킹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상대회를 이끌어 나갔다.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미국에서 법무법인을 운영 중인 김한신 변호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YBLN 회장에 법률 전문가가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상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회공헌 재단 '글로벌한상드림'의 가시적인 성과도 돋보인다. 출범 1년을 맞이한 글로벌한상드림은 6명의 '글로벌한상드림 2017 드림서포터즈'를 선발해 이들에게 최대 10년 동안 매년 5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폐회식에서 한상 대회 참가비 일부와 장학기금을 모아 창원지역 내 탈북가정과 다문화가정, 그리고 소외계층 학생 3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3일간 진행된 대회는 오후 6시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보다 앞선 5시에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글로벌 시대와 한상대회'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창원시민에게도 무료 개방돼 참가자 등 천 여명이 반 전 총장의 강연을 보기 위해 행사장을 꽉 채웠다.

폐회식은 3일간의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을 감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글로벌 한상드림의 장학금 전달식, 차기 개최지로의 한상기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인기 가수 인순이와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피날레 공연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환송 만찬을 끝으로 모든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해주신 국내외 경제인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장이 됐다고 평가한다"며 "한상네트워크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는 신념 아래 대회 기간 내 구축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7차 세계한상대회는 내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5

너의 조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전호의 계속)

6. 마지막 음절 종성의 'ㄴ'과 'ㅇ' 탈락 현상

재소고려인은 마지막 음절의 종성이 'ㄴ'이니 'ㅇ'으로 끝나는 단어를 발음할 때 대개 그 마지막 음절 종성 'ㄴ'과 'ㅇ'을 탈락시키고, 탈락시킨 그 음절을 길고 강하게 발음한 다음 거기에 약한 'ㅣ'를 첨가해 발음한다.

예(1) 사이 → 산, 정시 → 정신, 아이 → 아니 또는 안 ('아이'는 '아'라고 발음), → 나이

예(2) 사두이 → 사돈, 자이 → 장, 된장

(중략)

* 고려인(사람): 구소련한인, 고려말: 구소련한인의 방언 - 편집자 주

(출처: 김병학, 한 야꼬브 공저, 재소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I, II), 화남: 2007)

1. 첫글을 읽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고려말의 예를 써보세요.

2. 한국어의 새로운 변형인 고려말에 대한 평가가 다양합니다. 고려말은 한국어의 주류문법에 어긋난 변형이므로 이를 폐기하고 현대 한국어의 문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정한 규칙과 단어를 갖는 새로운 언어영역으로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다음은 "씨를 활활 뿌려라"라는 고려사람들의 노래이다. 이 노력에 나타난 현대 한국어와 차이가 나는 고려말을 찾아 보세요.

씨를 활활 뿌려라

1. 이 넓은 논판에 씨뿌려
풍작의 가을이 돌아오면
누렇게 누렇게 벼이삭
욱어 욱어져 파도치리
2. 풀호스 농장아 왜 끊어
봄을 마중해 소리치니
뜨락뜨르 뜨르릉 구울러라
파종 시절이 늦지 말게

(후렴) 에헤헤 뿌려라

씨를 활활 뿌려라
땅의 적을 짜먹고
외삭 외삭 자라나게

과제 학습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1. '-에 불과하다. -경우에, 여간, 고사하고, 막론하고'를 사용하여 두 문장씩 만드세요.

- (1) _____
- (2) _____
- (3) _____
- (4) _____
- (5) _____
- (6) _____
- (7) _____
- (8) _____
- (9) _____
- (10) _____

2.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웃의 어른들을 통해서 가족의 이주사를 간단히 써보세요.

(끝)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글짓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글짓기 콩쿠르를 개최합니다.

- **취지:**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문화 대한 자량과 보람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 **공모대상:** 사할린 동포
- **공모부문:** 체험수기 (후기 - 소감 등)
- **입상자 수:** 3명 (상금)
- **공모주제(테마):** 올해부터 추진된 2-3세 모국방문에 대한 소감, 작년부터 추진된 1세대 동포의료검진에 대한 후기 또는 소감. 한글과 러시아어로 가능.
- **공모기간:** 2017년 12월 20일까지. 우수작은 새고려신문에 게재.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Диктант состоит из 30 тестовых вопросов. 20 - одинаковые для всей России и стран ближнего зарубежья, а 10 составлены с учетом региональной специфики. Общая сумма баллов, которые можно набрать за правильное выполнение всех заданий, - 30 (по одному баллу за каждый правильный ответ). На написани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 отводится 45 минут.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10 регион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для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 были составлены ведущим кафедрой российской и всеобщей истории СахГУ, профессором, доктором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Александром Василевским.

В этом году для удобства жителей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едусмотр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написания диктанта в онлайн-режиме.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зайти на сайт «Большого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 www.miretno.ru или на сайт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артнера акции - газеты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и выполнить тестовые задания. Пройти диктант можно с 10.00 3 ноября (по сахалинскому времени) до 23.59 5 ноября (по московскому времени).

Правильные ответы на задания и разбор типичных ошибок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мероприятия до 10 ноября, результаты Диктанта подведут ко Дню Конституции РФ 12 декабря.

제 4회 <기적의 섬들에서> сахалин 인형극장 축제에 22개 작품 소개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제 4회 сахалин 국제 인형극 축제<기적의 섬들에서>로 сахалин 은 잊을 수 없는 찬란한 축제의 중심지가 된다. 축제는 сахалин 인형극장이 주최하고 сахалин주 문화고문서보관부의 후원으로 개최된다고 극장 홍보실이 전했다.

축제는 9개국, 20개 극장, 인형극 22작품으로 130명이 참가한다. 축제 참가국은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몰다비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일본의 배우들과 연극 전문가들, 그리고 러시아의 크림반도부터 극동지역까지 극장의 대표자들이 сахалин을 찾아온다. сахалин 주민들은 가장 다양한 인형들과 만나게 되고 전 연령층의 그룹들을 위한 각종 장르의 인형극을 관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형극 축제는 광범위 사업 프로그램이다. 초대된 연극 전문가들, 비평가들, 감독들은 실습 수업, 강의를 진행하고 예술가들과의 만남에도 참가하게 된다.

<기적의 섬들에서>축제는 지역 간, 국제 간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сахалин에 극장계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축제 참가자들은 순회공연으로 сахалин 북부지역에서도 진행한다. 수준 높은 인형극 예술을 수많은 сахалин의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배우들은 오하, 노글리키, 티몹스코예, 포로나이스크를 찾아가 공연을 펼치는데 순회공연은 <축제가 당신을 찾아갑니다!>라는 장려기획의 일환으로, <сахалин 에너지>회사에 <에너지기아>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22 спектакля представят на IV сахалинском фестивале театров кукол "На островах чудес"

С 3 по 13 ноября островная область станет центром яркого незабываемого праздника — IV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театров кукол "На островах чудес".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ыступит сахалинский театр кукол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театра.

130 участников, 9 стран, 20 театров, 22 спектакля. На Сахалин приедут артисты и театроведы из Армении, Белоруссии, Молдовы, Польши, Чехии, Словакии, Эстонии, Япо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еатров России от Крыма д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ахалинцы познакомятся с самыми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куклами, увидят спектакли разных жанров и для вс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Фестиваль — это обширная деловая программа. Почетные гости — театроведы, критики, режиссеры — проведут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прочтут лекц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творческих встречах.

Фестиваль "На островах чудес"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театрального дела на Сахалине, укреплению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С гастролями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побывают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Поездки пройдут в рамках грантового проекта "К вам едет фестиваль!"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Энергия" Артисты отправятся в Оху, Ноглики, Тымовское, Поронайск, даря возможнос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му количеству сахалинцев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высокому театральному искусству.

(сахалин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сахалин주 창설 70주년

сахалин주한인회 25주년 기념축제 제10회 сахалин 한민족청소년 노래자랑

일시: 2017년 11월 25일

장소: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

주최: сахалин우리말방송국

후원: 한국어여성가족부, сахалин주한인회, «아시아나»지점

시상내역: 대상 : сахалин - 서울 왕복 각 부분별 항공권

학생 7-17세 1,2,3 등 시상

대학생 청소년 18세-35세

1, 2, 3 등 시상

참가신청은 11월 21일까지입니다.

동포여러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сахалин우리말방송국 (46-40-25)

주한인회 (51-04-82)

сахалин한민족청소년노래자랑조직위원회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э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э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э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